

도시공유재의 인클로저와 테이크아웃드로잉의 반란적 공유 실천 운동

Enclosure of Urban Commons and Takeout Drawing's
Insurgent Commoning

한윤애*

공유재와 인클로저는 어떻게 도시 공간의 물리적 축출과 법적·규범적 통제가 맞물려 일어나고 저항의 지점들을 만들어내는지 보는 개념으로 설명력과 실천력을 가진다. 최근 공유재와 인클로저를 현대 도시의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재해석하는 작업이 활발한데, 활발한 이론화 작업에 비해 도시공유재의 침식과 이에 저항하는 공유 실천 운동(commoning)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이 논문은 2015~2016년에 서울시 한남동의 예술작업장, 전시공간이자 카페인 '테이크아웃드로잉'에서 일어난 상가임대차인 간 갈등과 극복의 과정을 다루고, 자본과 실정법 논리에 기대어 사태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과 젠트리피케이션에 맞서 공유지대를 만들어내려는 테이크아웃드로잉의 저항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젠트리피케이션 저항에서 공유 실천 운동이 지니는 의미와 반란을 통해 '실재하는 도시공유재'를 만들어가는 것의 의의를 강조하려 한다. 대중은 사유재산권과 계급의 논리에 기대어 사태를 '가진 자들의 싸움, '법대로' 하지 않고 '떼쓰기', '운이 없어서' 불거진 사적 개인의 갈등으로 재현하며 상대적 강자인 건물주에 편승해 사적 폭력의 사용을 정당화한다. 반면 테이크아웃드로잉은 사태를 사인들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서울의 투기적 도시화 경험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이자 삶의 기반을 박탈당한 이들이 함께 직시해야 할 문제로 이해하며, 이들의 저항 운동은 젠트리피케이션에 집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유지대를 어떻게 구상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현장 연구는 지식의 생산과 사회적 실천의 과정을 교차시킴으로써 안과 밖의 경계 허물기를 지향하는 전투적 연구(militant research)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yoonai.han@gmail.com)

주요어: 젠트리피케이션, 인클로저, 도시공유재, 공유 실천 운동(communing), 테이크아웃드로잉

1. 들어가며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은 빠르게 대중적 용어로 자리 잡았다. 국립국어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우리말식 표현으로 ‘동지내몰림’을 제안한 것은 한국의 도시화 경험에 맞는 용어의 해석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다(《중앙일보》, 2016년 5월 10일자). 특히 이 번역어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주요한 내용이 삶의 터전으로부터의 내몰림(displacement)이라는 점이 부각되어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언급한 보도자료가 대부분 서촌, 홍대, 성수동, 경리단길과 같은 상업지역과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비롯된 갈등 사례를 다루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처럼 한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유행에 따라 빠르게 바뀌는 상업지역의 간판들과 업종 변화로,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저항 운동은 사설 경비업체의 용역을 동원한 폭력적 강제집행에 맞서는 활동가들의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가 대중화되면서, 삶의 터전으로부터의 내몰림이 도시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나타나고 있다. 연구자와 활동가들 사이에서 도시공유재에 대한 논의와 공유의 실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는 젠트리피케이션 담론과도 교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도시공유재 논의와 공유 실천 운동¹⁾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1) 도시공유재 논의에서 ‘커먼(즈)[common(s)]’은 명사로 공유지, 공유재, 공유자원, 동사로 공유하기 등으로 번역된다(배수현 역, 2015; 이계수, 2014; 최은창 역, 2015; 최현, 2013). 이 글에서는 명사로서 ‘커먼(즈)[common(s)]’은 공유재로, 동

생존의 기반으로부터 내몰리고 있다는 인식, 국가가 내몰림으로부터의 안전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불안감, 그리고 자원을 적합하게 배분하는 주체로서 국가와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현실 인식 등이 있다 (Bresnihan and Byrne, 2015; Caffentzis and Federici, 2014; Gidwani and Baviskar, 2011; Kip et al., 2015: 9). 이에 따라 최근 들어 도시의 위기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공유재의 인클로저를 현대 도시의 맥락에서 재해석하는 작업 역시 활발하다(김용창, 2015; 윤순진, 차준희, 2009; Hodkinson, 2012; Jeffrey et al., 2012; Sevilla-Buitrago, 2015).

이 논문에서는 공유재의 인클로저를 현대 도시의 위기와 저항을 설명하는 개념적 도구로 사용하는 국내외 논의들을 검토함으로써,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반대’를 구호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천 운동을 개념화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모색하고, 사례 연구를 통해 ‘실재하는 도시공유재’(Eizenberg, 2012; Noterman, 2016)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 연구 대상은 2015년과 2016년에 소위 젠트리피케이션 반대 운동의 최전선이라고 불리며 내몰림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공론화한 ‘테이크아웃드로잉’이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은(이하 드로잉)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의 대로변에 위치한 예술가들의 작업장이자 전시공간이며 카페다. 소재지 동네를 작업의 재료로 삼는 ‘동네미술관’, 제도적 지원과 대 자본의 권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발전’하는 독립공간을 표방했는데²⁾ 최소 영업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상가임대차 계약³⁾ 등의 문제로 그간 삼

사로서 ‘커먼(common)’과 ‘커머닝(commoning)’은 심사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공유 실천 운동’으로 번역해서 사용한다. 제목과 본문에서 사용하는 ‘반란적(insurgent)’은 도시 공간과 일상이 법이나 규범, 감시에 의해 통제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공공공간, 시민권 논의(Hou, 2010: 2; Miraftab and Wills, 2005)에서 차용한 것이다.

- 2) 이러한 테이크아웃드로잉의 지향점은 입구에 걸려 있었던 다음의 인용 문구에 함축적으로 나타난다. “드로잉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만들어 낼 수 있는 무한한 땅이다[Drawing is a boundless land where anything we imagine can be built(오프닝 스튜디오, 디자인 그룹).”
- 3) 2013년 8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약칭: 상가임대차법)의 개정으로 임차인

성동, 성북동, 혜화동을 거치며 세 번의 이주를 겪었다. 잦은 이주 후에 세 명의 운영진은 오래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을 찾던 중 이를 보장한다는 한남동의 건물로 2010년에 이주했다. 드로잉은 이전에 고깃집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예술작업장, 전시공간이자 카페로 꾸몄고 이 공간은 2012년 개봉 영화 <건축학개론>의 촬영지로 사용되는 등 많은 예술가와 젊은 이를 불러 모았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장기 계약과 묵시적 계약 연장을 약속한 건물주가 건물을 팔고 다음 건물주가 다시 한 유명 연예인에게 건물을 팔았으며, 그는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이유로 드로잉에게 이주할 것을 요구했다. 묵시적 연장을 조건으로 성립한 계약임을 주장하는 드로잉 측과 무효를 주장하는 건물주 측은 1년여가 넘는 기간 법적 공방을 벌였고, 공방이 진행되던 중에 수차례 사설 경비 용역을 동원한 강제 집행 시도가 일어났다. 드로잉 측은 ‘재난’, 도시 ‘난민’들의 ‘대망명’, ‘유배지’, ‘도시의 위기’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이 사태를 서울의 투기적 도시화 경험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이자 권리를 박탈당한 도시민들의 문제로 규정했다.⁴⁾ 드로잉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도시에서 내몰림을 경험하여 드로잉의 상황에 동질감을 느낀 인디뮤지션, 시각예술가, 디자이너, 영화감독, 사진작가, 문화기획자, 문화활동가, 소설가, 자영업자, 언론인, 연구자와 같은 다양한 이들은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끊임없이 공연, 전시, 행위예술, 포럼을 벌이며 현장에 연대했다. 연대는 임대차인 간 최종 합의로 드로잉이 영업을 종료한 2016년 8월 30일까지 계속되었다.

은 최대 5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나, 드로잉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시점이 법 개정 이전이었기 때문에 최소 영업기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또한 개정 이후에도 임대인이 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5년의 영업기간이 보장되지 않는다.

- 4) 투기적 도시화, 젠트리피케이션, 권리 박탈 등에 대해선 테이크아웃드로잉 운영진 등이 주최한 2015년 <5회 한남포럼>과 2016년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포럼>에서 기조발제로 참여한 신현방의 연구를 참조하라 (Shin and Kim, 2016; Shin, 2016).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 연구는 사회과학적 지식의 생산을 사회적 실천에 삽입함으로써 주체와 객체, 안과 밖의 경계 허물기를 지향하는 ‘전투적 연구(militant research)’ 방식으로 진행했다(Bresnihan and Byrne, 2015; Russell, 2015). 필자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현장을 방문해 관찰을 기록으로 남겼다. 사태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반사회, 조찬모임, 공연, 영화제, 포럼, 그리고 카페 공간을 거점으로 일어난 다양한 행사를 지켜보았다. 2016년 1월에는 테이크아웃드로잉과 예술가, 문화활동가, 기자, 연구자의 연대로 <재난연구소>가 구성되었고, 필자는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재난연구소>의 ‘레지던시’ 연구자’로 참여했다. 현장 연구 방법으로서 ‘전투적 연구’의 특징은 ‘진실을 전도하는(사회)과학과 실천의 현장’을 양분하는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고(Russell, 2015: 224)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급진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구체적인 현장으로부터 도시정치를 조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총 5절로 이루어졌다. 다음에 이어지는 2절에서는 생태 자원을 주로 다룬 전통적인 인클로저와 공유재 개념이 어떻게 현대 도시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본다. 현대의 도시 인클로저는 젠트리피케이션, 사유화, 상품화를 포함해 다양한 개념과 혼용되고 있음에도 공유재의 침식을 지각하는 데 유용한 개념적 렌즈를 제공한다(Sevilla-Buitrago, 2015). 3절에서는 드로잉 사태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저항 과정에서 드로잉이 사용한 언어의 대비를 살펴본다. 사태를 다룬 보도자료와 이를 재생산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반응은 실정법과 자본의 논리에 기반을 두어 사태를 사적 개인 간 계약의 문제로 보

- 5) 예술작업장, 전시공간으로서 드로잉은 그간 주로 (시각)예술가의 작품활동을 레지던시 형식으로 지원하며 작품활동의 과정을 전시해왔다. 각 레지던시 작가가 공간에 상주하거나 머물면서 작품활동을 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두 달이다. 2015년 3월부터 9월까지 있었던 강제집행 시도 이후에 운영진은 현장 상황에 적합한 레지던시 형식을 고민했으며, 그 결과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연대하는 예술가들이 다수 참여하는 <모두를 위한 레지던시>, 5월부터 7월까지의 세 명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재난연구소> 레지던시를 기획했다(운영진과의 대화 중).

고 사적 폭력의 사용을 정당화한다. 드로잉은 법적 언어가 아닌 예술의 방식으로 사태에 문제를 제기하지만 이는 ‘권리금’을 받기 위한 술수라는 실정법과 자본의 언어로 번역된다. 대중은 싸움을 관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율법적 원리를 스스로 장착하고, 상대적 강자인 건물주에 이입하며 사설 철거 용역이라는 사적 폭력의 사용을 정당화한다. 4절에서는 드로잉이 사용한 대항 언어와 축제를 비법적·반란적(*insurgent*) 공유 실천 운동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드로잉의 저항은 사태를 우연히 일어난 임대차 갈등의 개별 사건이 아닌 서울의 도시화 경험이 필연적으로 만들어낸 문제로 확장하며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의 범지역적 연대망을 만드는 것으로 나아간다. 5절에서는 ‘실재하는 공유재’는 매끄럽지 않은 경계에서의 끊임없는 반란을 통해 확장되는 것임을 강조하며 젠트리피케이션에 저항하는 운동으로서 드로잉의 반란적 공유 실천 운동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본다.

2. 도시공유재의 인클로저와 공유 실천 운동

젠트리피케이션 논의는 주로 축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특정한 공간들이 철거되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적 기술, 즉 공간을 사용해 공유재를 생산함으로써 도시를 다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Sevilla-Buitrago, 2015: 1011).

이 연구의 이론적 탐색은 젠트리피케이션 논의에서 공간의 철거와 함께 사회적 관계의 축소를 다루어야 한다고 보는 Sevilla-Buitrago의 위 제안으로부터 출발한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도시민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도시민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축출은 젠트리피케이션 논의의 핵심이자 투기적 도시화가 성공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Shin and Kim, 2016). 여기

에 집합적으로 공간을 생산하는 능력의 말살이라는 차원을 더해보자는 제안은 공간의 소멸과 공간이 내포하는 사회적 관계의 소멸,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고안되는 배타적인 공공성 개념을 각기 따로 떼어 볼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하다(김용창, 2015; Sevilla-Buitrago, 2015). 공간의 파괴는 공간을 거점으로 하는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 파괴로 이어진다는 논의는 마을의 소멸, 공공공간의 축소에 대한 우려에서도 나타난다. 가령, 어느 산간마을이 사라지는 것은 공간으로서 마을뿐 아니라 ‘자율적 규범 하에서 임야의 숲 이용을 조절해오던 지속가능한 삶의 공동체가 커먼즈에 대한 통제 권한까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관점(이계수, 2014: 142)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수반하는 공간 축출과 공유재로서 사회적 관계를 연결된 것으로 보려는 이 연구의 접근과 유사하다. 공간의 파괴는 곧 공적 관계의 상실이며 축출과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Hodkinson, 2012). 필자는 이와 같은 공간과 관계의 소멸을 도시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소멸에 저항하는 움직임을 눈여겨 본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저항과 공유의 실천 운동에 주목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그와 같은 움직임을 상실과 파괴에 대한 ‘도시민 불복종’(이계수, 2014), ‘반란’을 일으키는(Mirafab and Wills, 2005) ‘아나키텍트’(이임수, 2014), ‘공유도시’(곽노완, 2013)라는 개념으로 포착한 바 있다. 이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층위에서의 내몰림을 인지하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언어이며, 부당한 권리와 존재를 드러내는 실천을 통해 도시공유재의 지각을 넓히려는 시도다.

1) 도시공유재의 인클로저와 한국 도시화 경험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

공간의 물리적인 축출과 사회적 삶의 소멸, 그리고 법적·규범적 통제 의 차원이 교차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인클로저와 공유재의 논의부터 살펴볼 수 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영국 등 농촌에

서 인클로저가 일어난 원인은 다양했다. 인클로저를 정치경제적으로 해석해 현대 도시 공간에 적용한 Hodkinson(2012: 502)은 ‘비옥한 토지를 사유화하고자 하는 욕망’이 당시 인클로저가 일어난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본다. 인클로저는 기존에 공동 경작지나 임지로 존재하던 토지에 대해 사적 소유권을 확립해가는 과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 소유권의 확립과 소수 지주로 집중되는 토지 소유, 이들의 대지주화와 삶의 기반으로부터 영세 농민의 축출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인클로저’는 우리말로 ‘울타리 치기’ 또는 ‘종획운동’으로 번역된다. 사적소유권이 확립되기 전부터 공유지와 공동권(common right)과 관습권(customary right)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던 영세 농민들은 토지가 사유화됨에 따라 삶의 터전을 잃고 농촌을 떠나야 했다(송병건, 2010). 그렇게 농민들이 떠나고 남은 집과 마을은 사유 농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내기 위해 또는 개발을 위해 붕괴되었으며, 생계의 기반을 잃은 농업 생산력은 도시로 이주해 자본주의 도시의 노동력으로 흡수되었다(Hodkinson, 2012; Sevilla- Buitrago, 2012). 이로부터 우리는 전통적 인클로저를 공유지였던 곳에 울타리를 치고 법적으로는 사적 소유권을 확립함으로써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이들은 울타리 밖으로 몰아내어 도시화 과정의 일부로 종속시키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인클로저 개념을 현대 도시 맥락으로 가져오는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인클로저가 물리적으로는 울타리 치기와 법적으로 공유지에 대한 사유 재산권의 확립을 통한 대지주화라는 전제를 공유한다. 그러면서도 이를 재해석하는 작업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인클로저가 일어나는 시기에 관한 것이다. 이를 다시 자본주의의 주기적 위기, 또는 특정한 역사적 순간에 축적된 자본의 방출구로서 인클로저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관점과 시장 사회에서 인클로저는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자본의 영역뿐만 아니라 전 범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인클로저의 행위 주체와 도구를 보는 시각에서 나타난다. 행위 주체 관점에서는 경제적 행위 주체가 사유화를 인클

로저의 주된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분석에서 주로 국가나 자본에 의한 물리적 축출과 재산권 체계를 규정하는 법제(김용창, 2015)에 초점을 맞춘다. 인클로저 도구의 경우, 공공공간에서의 감시와 통제(배수현 역, 2015: 96; Sevilla-Buitrago, 2012), 디지털 공간에서 정보의 독점(최은창 역, 2015: 431),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수월하게 만드는 감시와 통제의 내면화라는 미세기술(Hodkinson, 2012; Sevilla-Buitrago, 2015)까지 포함하게 되었다고 본다.

울타리 치기에 의한 약탈과 배제는 고전적 의미의 인클로저가 진행되었던 농촌 공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요새화, 게이티드 커뮤니티로 대표되는 현대 도시 공간에서도 계속되는 현상이다. 본 논문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에 저항하는 움직임을 현대 도시에서 일어나는 공유재 침식의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는데, ‘도시’ 인클로저가 배타적인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려 한다. 먼저 도시 인클로저의 개념화를 시도하는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지점으로, 울타리가 물리적 벽을 구성하는 ‘단단한 고철’이 될 수도 있지만 행위 코드의 주입과 감시를 통해서 일어나는 비물질적인 경계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있다(Hodkinson, 2012). 예컨대 Blomley(2007: 15)가 나무 울타리(hedge)가 단순히 사유지 간의 경계를 표시하는 지표가 아니라 ‘사유재산권에 의한 배제와 공유재 사이의 갈등이 물질화되어’ 있는 것으로 본 것은 이 점에 서다. 또한 Sevilla-Buitrago(2015)는 물질로서 벽이 존재하는 것은 공유재의 기반을 공격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벽을 세우는 작업은 그 자체로 수많은 정치경제적 조건들의 조합인 통치 전략을 요하는 것이라 표현함으로써 인클로저를 공간의 소멸과 사회적 삶의 박탈로 보는 접근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요약하면 도시 인클로저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에 대한 도시민의 이데올로기적·물질적 의존성을 낮추려고 시도하는 공간이나 사회성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물질적·법적·사회적, 그리고 담론적 기술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 인클로저는 울타리 안으로 포함시킬 만한

삶의 새로운 영역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게 되며, 때때로 막힌 공간과 사회적 관계의 이질성과 차이를 비워내고 균질화하며 일어난다(Jeffrey et al., 2012). 우리는 여기서 비워냄의 대상이 되는 존재에 대해 더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 존재들이란 울타리 치기에 걸림돌이 되는, 즉 사유재산권의 확립과 강화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인데, 이를 방해물로 규정하고 제거하는 국가와 자본의 권력에 주목한 연구들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권력이 이들이 어떻게 ‘비문명’, ‘야만’, ‘낭비’, ‘게으름’으로 명명하며(Hodkinson, 2012: 503), 반대로 국가가 대대적으로 슬럼가를 철거하는 작업에는 ‘도시 미화’, ‘세계적 수준’과 같은 수사를 동원하는지 폭로하는 것은(Ghertner, 2014: 1564) 인클로저를 용이하게 만드는 미세기술의 작용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마지막으로 인클로저의 또 다른 도구, 즉 울타리 치기를 쉽게 만들기 위해 ‘자본주의적, 식민주의적, 권위주의적 기계’로 도시민의 몸과 마음을 재편하는 주체화 논의로 이어진다(Hodkinson, 2012: 509). 주체화는 개인들이 시장의 소비자,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옹호자로서 정체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혹은 부동산 소유자의 편에 서게 되는 것으로 설명된다(ibid.). Jeffrey et al.(2012)는 이를 인클로저가 몸 차원의 생정치(biopolitics)로 일어나는 것이라 설명하며 Sevilla-Buitrago(2015)는 인클로저와 공유재가 지나는 공간성을 도시 공간에서부터 집, 그리고 몸의 단위까지 넘나들며 검토한다. 벽을 세우는 것을 ‘장벽과 경비, 감시, 도시 토지의 정치경제, 통제, 그리고 생정치적 이상불라주’로 보는 Jeffrey et al.(2012: 1252)의 제안은 도시공유재의 인클로저가 일어나는 여러 층위들이 어떻게 교차하는지 살펴보는 작업에 유용한 인식의 틀을 주는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 사설 경비 용역을 동원한 폭력적 강제 철거와 그로 인한 공동체의 소멸, 상가임대차법을 사회적 합의 결과가 아닌 불변의 도덕적 판단 기준으로 삼아 건물주를 옹호하는 개인들을 복합적으로 보는 필자의 관점 또한 이와 같은 인식 틀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반대 운동의 최

전선'이라고 불린 특정 공간의 사례를 통해 울타리 치기, 감시와 통제, 권위주의적 법리의 내면화가 어떻게 중첩되는지를 다룬다. 이를 위해 한국의 도시화 경험에서 젠트리피케이션과 도시공유재, 공유 실천 운동이 지니는 의미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한국과 중국, 인도 등 비서구 도시의 맥락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듯이(Ghertner, 2014; Lees et al., 2016; Shin et al., 2016) 부유층의 유입에 따른 구도심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설명하는 서구 중심의 젠트리피케이션 이론은 오늘날 비서구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는 도시 과정을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령, 젠트리피케이션이 수반하는 폭력은 도시화율이 가속화되는 비서구에서 더 원초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관찰은(Ghertner, 2014; Hodkinson, 2012) 건설사와 지주가 재개발 사업 효율에 방해가 되는 장벽을 빠르게 제거하는 수단으로 용역 폭력을 동원한 한국의 투기적 도시화 경험 분석에 의해 뒷받침된다(Shin and Kim, 2016). 한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계보는 국가가 주도한 낙후 지역의 철거 재개발, 대규모 단지 개발, 뉴타운 사업 등으로 나타났는데(ibid.) 도시 개발 담론에서 사용되는 용어에도 반영되어 있다. Shin and Kim(2016)은 한국 발전주의 국가가 주도하는 투기적 도시화의 프로젝트는 도시재개발과 재생으로, 프로젝트의 부정적 결과는 강제 철거, 강제 이주로 느슨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 저항 운동이 철거 재개발 반대 운동, 주거권 운동 위주로 전개된 것 또한 이 같은 도시화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 도시화 경험의 차이는 공간이 축출되는 양상뿐 아니라 저항 운동이 지니는 의미의 차이로도 이어진다. 비서구 도시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저항 운동이 지니는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에서, Ghertner(2014: 1560)는 서구에서의 운동은 '이미 한 차례 이상 사유화된 공간과 확립된 사유재산 체계 내에서 용인 가능한 정도를 넘어서 상품화가 심화'되는 것에 반대하는 성격을 지녔던 것에 비해 비서구의 운동에서는 아직 '상품화되지 않은 이질적 공간과 관계의 상품화를 거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이해한

다. 젠트리피케이션 이론의 서구 중심성이 동아시아의 연구와 실천에서 비판 담론을 형성하는 데 제약이 되어왔다는 Shin et al.(2016)의 지적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에 저항하는 움직임에 포착하는 작업에서 도시화 경험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을 생각해보게 만든다. 이를 고려하면 젠트리피케이션에 저항하는 실천과 논의로서 도시공유재와 공유 실천 운동이 한국과 동아시아의 발전주의 도시화 맥락에서 지니는 의미 또한 달라진다. 젠트리피케이션 저항 운동을 도시에서의 사회적 공간과 삶에 드리워진 울타리를 걷어내는 실천으로 본다면(Gillespie, 2016; Jeffrey et al., 2012) 그러한 실천이 나타나는 공간과 지향점 또한 한국의 대규모 철거와 재개발, 최근에는 상가임대차 갈등에 맞서는 움직임에서 특수하게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탈발전주의 도시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유재를 살펴보는 작업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황진태, 2016). 향후 도시공유재가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에 주는 함의를 모색하는 작업이 더 축적된다면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저항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더 면밀히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실천 운동으로서 공유

도시공유재 개념이 최근처럼 주목받기 이전에 공유재 논의의 초점은 주로 생태 자원의 관리와 거버넌스, 공공재, 커뮤니티 관리에 맞추어져 있었다(Foster, 2011). 공유재 논의의 고전은 한국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개럿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으로 대표되는데, 비극을 막기 위한 해결책의 선택지는 공유지의 사유화 또는 국유화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된다(Bollier, 2013: 10; Caffentzis, 2010 참조). 공유 자원의 ‘관리’ 가능성에 과도하게 초점 맞춘 이 같은 논의는 대상의 범위만 생태자원에서 도시의 자원으로 확장한 채로 반복되기도 한다. 가령 O’Brien(2012: 469)은 “지역사회가 사회적·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질서 있는 근린지역을 유지”하는 것을 공유재 관리의 목표라고 말한다. 여기

서 목적 없이 배회하거나, 공공공간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의 존재는 도시공유재 관리의 장애물이 된다. 이러한 접근은 도시공유재라는 수사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관리자의 시선으로 지역사회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일축되는, 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제거한다는 발상은 오히려 앞에서 살펴본 인클로저의 논리에 가깝다. 관리 지향적 접근의 전제는 공유재를 그대로 방치하면 고갈되고 말 것이라는 선협적 결론이다.

이 같은 논의는 공유재를 물질, 특히 물리적 공간으로 한정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집합적 관리의 가능성과 현대 도시로 논의를 확장할 가능성을 제한시키고 있다. 먼저 ‘공유지의 비극’에서 비극이 일어나는 공간은 목초지이며, 농장, 어장 등 생태 자원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변형된다. 이에 비해 도시공유재 접근에서는 생각하고 작동하는 방식, 사회적 관계와 자원을 조직하고 구성하는 방식까지 공유재의 차원에 포함시킨다(Eizenberg, 2012; Linebaugh, 2008: 278).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는 통상 공유지, 공유자원, 공통자원으로도 번역되지만 물질적 공간 혹은 자원으로 한정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원어 커먼즈(communs)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이계수, 2014; 정영신, 2014).

다음으로, 관리지향적인 공유재 접근은 공유재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분함으로써, 공유재를 집합적으로 생산하고 향유하는 공간적 기술은 고려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기도 하다(Sevilla-Buitrago, 2015). ‘비극’을 막기 위해 가능한 두 선택지로 국유화와 사유화를 제안하는 것은 양 극단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공간적 기술을 소멸시키고 권력화된 영토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공유재를 국유화하거나 사유화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오랜 기간 만들어온 자율적 관리 체계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Eizenberg, 2012). 국유화의 선택지에서 ‘공적인’ 것이란 소유권의 법리적 분류에 해당하며 ‘사적인’ 것에 대비되는 것인데, 도시공유재는 이 의미에서 공과 사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Gidwani and Baviskar, 2011). 이 점은 공과 사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공통의 이익을 추

구하는 전유의 공동체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 이계수(2014)의 지적과 강력한 국가권력의 개입이나 사유화가 아닌 공유성의 유지를 지향하는 윤순진·차준희(2009)의 논의에서도 드러난다.

도시공유재 논의에서 종종 등장하는 ‘인클로저와 공유 실천의 이중 운동(double movement of enclosure and commoning)’이라는 표현은 공유재의 침식과 실천 운동의 역동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다(De Angelis, 2012; Jeffrey et al., 2012; Vasudevan et al., 2008). 특히 실천 운동을 다루는 도시공유재 논의에서는 국가와 시장의 ‘이중 위기’에서 도시민들이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는 대안적인 경제적, 정치적 모델을 찾으려는 시도가 공유재(communs)와 공유 실천 운동(commoning)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며(Caffentzis and Federici, 2014; Kip et al., 2015: 9) 그 일차적 목적은 다양한 재생산의 필요를 도시민이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라 설명한다(De Angelis, 2012). 이 같은 맥락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부동산 붐으로 일컬어지는 도시의 극단적 상품화에서 살아남으려는 독립 공간들의 실험은 국가적·자본주의적 인클로저에 포획되지 않고 대안적 공간과 관계를 만들어가려는 즉각적 ‘탈주’로 묘사된다(Bresnihan and Byrne, 2015). 탈주는 이중 위기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도시에서 두드러지는데, 이 점에서 실천 운동에 초점 맞춘 논의에서는 새로운 공유의 실험 또한 도시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한다(Kip et al., 2015: 9).

이 지점에서 인클로저를 법적 소유권의 확립이라는 단일한 차원으로 치환할 수 없는 것처럼 공유재는 물질적 공간에 한정되지 않으며, 특히 소유권적 의미에서 공적으로 소유되는 공간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하려 한다. 도시공유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이 반드시 반-자본주의적 또는 비-자본주의적 경제 공간은 아니다(Hodkinson, 2012). 같은 의미로 광장이 광장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그곳을 둘러싼 상업시설들과 일정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집합적으로 생산된 공유재가 시장의 방식으로 거래된다고 해서 그것이 생산 방식의 공유재적 성격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곽노완, 2012; Harvey, 2012:

74). 이 점에서 필자는 주류 예술이 거래되는 공간인 갤러리를 벗어나 ‘자가발전’하는 예술공간을 지향하는 드로잉, 또는 공유의 실험을 진행 중인 동네 가게, 독립 공간들은 그것이 비록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커피를 판매하는 공간일지라도 이를 도시공유제와 공유의 실천이라고 본다. 드로잉의 저항 과정에서 나타난 공유제 논의에 대해서는 논문의 이어지는 부분에서 후술한다.

한편 국가나 시장의 울타리 안으로 미처 재편되지 않은 공유제는 오래지 않아 그 울타리 안으로 새롭게 정비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지역적이고 사용가치를 중시하며 차이의 공간성을 생산해내는 움직임으로 존재하던 공간과 사회적 관계는, 통치하기 더 쉽고 교환하기 더 쉬우며 국가와 시장에게 더 잘 읽히는(*legible*) 것으로 변형된다(*Sevilla-Buitrago, 2015*). 모든 것의 가치척도가 시장에 맞추어지면서 공동으로 생산된 자원과 관계마저도 사유재산으로 전유되는 것이다(*곽노완, 2013; 배수현 역, 2015: 144; Jeffrey et al., 2012*). 앞에서 말한 실험적인 독립 공간들의 시도는 모순 되게도, 그 시도가 성공적일수록 높은 임대료와 잦은 철거에 맞닥뜨리게 되며, 공간들은 취약하고 불안정해진다(*Bresnihan and Byrne, 2015*). 우리는 시장의 울타리에서 탈주하고자 하는 가장 실험적인 도시공유제의 실천 운동까지도 상승된 임대료의 형태로 취해지거나 ‘합법적’ 절차로 그 거점이 철거되는 이 문제를 도시공유제가 부동산시장과 공적 제도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현실적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ibid.*). 이 점에서 도시공유제의 실천을 다루는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아직 시장의 가치척도로 번역되지 않은 독창적인 예술,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역설적으로 도시 인클로저에 잠식당하기 쉬우며 물리적 파괴, 도시계획의 조닝, 권리의 박탈을 통해 투자자, 기업가, 소비자를 위한 유토피아, 스펙터클로 재고되지 않고 사유화된 공간, 감시당하는 공간으로 끊임없이 교체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Gidwani and Baviskar, 2011; Harvey, 2012: 93*).

소비 공간으로 교체당할 위기 속에서 도시공유제는 법적 영토의 격차 사이에서 ‘국가 감시망의 안팎에서 춤추면서’ 살아남는다(*Gidwani and*

Baviskar, 2011: 42). 이처럼 도시공유재는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불안정한 경계 위에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공유 실천 운동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한다. 국가와 자본에 의한 율타리 치기로부터 도시민을 보호하는 사회성의 대안적 형태로서 공유 실천 운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아나키텍처’(이임수, 2014), ‘반란적 시민권’(Miraftab and Wills, 2005), ‘이성적이며 중재자의 역할’(Jeffrey et al., 2012)을 하는 것으로 허구적으로 상상되는 법적 이해를 전복시키는 것이 있으며, 공유 실천 운동이 구체적으로 표면화되는 형태 또한 다양하다. 특히 아나키스트적 일상에서의 실천을 찾는 움직임에서는 주거 협동조합, 세입자 연합, 길거리 파티, 커뮤니티 가드닝과 커뮤니티 키친, 스쿼팅 운동과 같은 다양한 직접 행동의 방법을 모색한다(김용창, 2015; Bresnihan and Byrne, 2015; Springer, 2014; Springer, 2015). 직접 행동의 형태적 기능대는 거의 무한하며 ‘이를 가로막는 것은 제한된 상상력일 뿐’이라는 Springer (2014)의 표현은 인클로저에 저항하는 공유 실천 운동의 잠재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공유 실천 운동의 전략으로 구체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투쟁하는 것은 다수자 중심 체제에서 ‘숨김’ 처리된 존재를 드러내고, 드러냄으로써 균열을 만들기를 지향하는 것이다. 장소는 그곳에 내재된 사회적 관계와 일상을 매개하며 장소에는 권력과 의미, 인정받은 권리와 배제된 권리가 모두 스며들어 있다(Blomley, 2008: 158; Leitner et al., 2008). 도시에서 장소를 매개로 일어나는 이 같은 실천 운동은 그곳이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권력과 의미를 전복시키고 재기호화함으로써 가치와 상상력을 담지한 장소를 지켜낸다는 점에서 장소를 차지하고 일어나는 비법 투쟁이라 불린다(김현경, 2015: 289~290). 또한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장소의 소멸은 사회적 관계와 존재의 소멸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장소를 향한 투쟁은 배제된 존재와 권리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투쟁이기도 하다(ibid.: 285). 다양한 종류의 내몰림을 경험하며 권리를 박탈당한 도시민들이 참여하는 실천 운동이 지니는 상상력은 그들이 전유함으로써 의미를 부여

하는 공간의 물리적인 경계 안에 머무르지 않고 공간을 넘어 확산된다.

요컨대 도시공유재와 인클로저는 도시 정책과 도시화 과정을 우회적으로 묘사하는 메타포가 아니라 오늘날 도시에서 벌어지는 다차원적인 권리의 박탈과 공간적 내몰림을 설명하는 개념이다(Hodkinson, 2012). 도시공유재는 공간을 매개로 일어나는 배제와 폭력, 타자 만들기를 설명하는 언어이며, 공유와 사유의 이분법을 넘어 사회적·문화적·정치적 대안 전략을 구체화하는 실천 언어다(김용창, 2015; Caffentzis, 2010; Eizenberg, 2012; Sevilla-Buitrago, 2015). 이와 같은 검토를 기반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드로잉의 저항이 전개된 양상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필자는 드로잉이 사태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규정하고 공유재의 침식에 저항하기로 택했으며, 상가임대차 갈등이라는 법적 문제에 축제와 전시, 공연과 포럼의 비법적 움직임으로 맞섰다는 점에서 이를 반란(insurgency)과 공유 실천 운동(commoning)으로 보고자 한다.

3. ‘법대로 하라’는 대중의 사태 인식과 테이크아웃드로잉의 ‘망명’

먼저 젠트리피케이션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드로잉이 사용한 언어와 실정법과 자본의 논리로 사태를 재현한 언론과 대중의 인식을 대조적으로 살펴본다. 2015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드로잉 사태를 다룬 122여 개의 보도자료와 이를 인용한 인터넷 커뮤니티와 댓글, 그리고 임대차인간 법적 공방의 과정과 투쟁 과정에서 양측이 사용한 문서와 언어적 표현이 이를 잘 보여준다. 언론과 대중이 사태를 다루는 방식은, 주류 예술계의 공간인 갤러리와 상품화된 작품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에 뿌리내리고자 했던 독립 공간의 실험이 제도와 실정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사회적 인식의 장벽에 부딪힌 사건을 어떻게 재현·재생산했는지 보여준다. 대중의 인식과 반응은 법과 자본의 논리로 재단하기, 실정법 만능주

<표 1> 언론과 대중이 사건을 재현하는 방식과 테이크아웃드로잉 측이 사용하는 언어의 대비

〈보도자료,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이 사건을 재현하는 방식〉		〈테이크아웃드로잉 측이 반복적으로 사용한 언어〉	
“떼쓰기”, “드러눅기”, “자칭 예술가와 그들에 병의해 보상금을 나누려는 무리들”	⇒ 법·자본의 논리로 재단하기	“작고 오래된 단골집을 가질 권리”, “자가발전”하는 “동네미술관”	⇒ 지역의 독립 공간, 사회적 관계와 권리에 대한 강조
“법대로”, “법의 철폐가 필요”	⇒ 권위주의적 리걸리즘, 실정법 만능주의		
“조선족 살인 청부업자 고용해라”, “을질”, “나도 갑질하러 간다”	⇒ 사적소유권의 폭력, 자본폭력의 정당화	“우리는 위기를 맞이하여 축제를 벌입니다”, “환대”, “재난 유토피아”, “창조적 공유시대”, “직접행동”	⇒ 불복종, 반란, 비법 투쟁, 드러냄으로써 권력을 폭로, 균열 만들기
“너네가 건물주처럼 국위 선양을 했나”, “그럼 건물을 사시든지”	⇒ 율법적 원리의 내면화, 신성 불가침의 사유재산권, 상대적 강자에 이입하기		
“똥 밟았다”, “재수가 없어서”, “악질 세입자한테 걸린 건물주”	⇒ 사적 개인 간 계약이 일으킨 개별 사건	“재난의 공공성”, “재난연구소”, “도시의 유산”, “셴트리피케이션”	⇒ 도시 전체의 문제, 범지역적 연대망의 확장
“한남동”, “월세가 700”, “커피가 만 원”, “벤츠 타고 다니던데”	⇒ 가진 자들의 싸움	“도시 난민”, “내몰림”, “망명”, “대망명”, “유배지”	⇒ 권리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의 문제

의, 사적소유권과 자본 폭력의 정당화, 율법적 원리의 내면화, 상대적 강자에 이입하기, 사적 개인 간 계약이 일으킨 개별 사건, 가진 자들의 싸움으로 요약된다.

먼저 보도자료에 달린 댓글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태는 임대차 계약을 ‘나이프하게’ 맺은 것이 연장되지 않아서 ‘건물주가 나가라는데’ ‘곱게 나가자’ 않아 벌어진 것으로 재현된다.⁶⁾ ‘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6) 연구에서는 보도자료, 댓글, 인터넷 커뮤니티들에서 사용된 표현들을 열거한 후 주제에 따라 분류했으며, 본문에서는 각 분류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표현들

도 공연, 전시, 행위예술, 포럼과 같은 방식으로 맞서는 드로잉의 저항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떼쓰기’, ‘드러눅기’, 그리고 ‘떼법’이 대표적이다. 임대인 측 변호사는 사건의 당사자와 현장에 연대한 예술가들을 가리켜 ‘자칭 예술가와 그들에 빙의한, 보상금을 나누려는 무리들’이라 칭한 바 있다⁷⁾(2016년 1월 드로잉에서 있었던 반상회 조찬모임 중). 이는 법과 자본의 논리로 치환되지 않는 것을 여전히 그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자가발전’하는 ‘동네미술관’으로서 드로잉이 주장하는 ‘작고 오래된 단골집을 가질 권리’는 결국 교환 가능한 시장 가치인 보상금을 바라는 것으로 일축되며, 지역에서 차이의 공간성을 생산해내려는 이들의 움직임은 ‘자칭 예술가’로 모욕과 폄하를 당한다.

사건의 발단부터 임대차인 간 합의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사태를 바라보는 평가하는 대중의 인식은 시종일관 실정법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사태를 보도한 대부분의 기사가 상가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법을 인용하며 사건을 보도한 것과, ‘법대로’⁸⁾ 하라, 나아가 ‘저런 자들에게는 법의 철폐가 필요하다’는 류의 표현이 이를 보여준다. 가령, “일반인 또한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는 이상 법의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쟁트리피케이션이니 약자탄압이니 하는 감정보단 명문화된 실정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고요(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2016년 2월 4일)”와 같은 언급은 현실에서의 필요나 개인들의 경험 이 아닌 실정법을 갖대로 사태를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대중의 인식은 ‘법은 법이다’라고 짚어 누르는 ‘권위주의적 리걸리즘’(이계수, 2014: 149)에 기반을 둔 것이며, ‘문명화의 도구인 동시에 약탈적 폭

을 중심으로 인용했다.

- 7) 드로잉 측은 임대인 측 변호사가 소장 등 법적 문서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마치 문학작품과 같다고 묘사하였으며, 현장에 연대한 소설가는 이를 ‘소송문학’이라 칭하고 내용을 패러디하기도 했다.
- 8) 사건을 다룬 언론 보도자료 페이지와 이를 인용한 인터넷 커뮤니티 페이지에 달린 댓글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단어는 ‘법대로’였으며 ‘을질’ 또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력의 도구로서의 법'이자 사회적 과정으로 구성되는' 법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기계적이며 박애주의적으로 작동하는 보편 규범으로서 중립적인 법'(Blomley, 2008: 161; Jeffrey et al., 2012)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드로잉과 이에 연대한 예술가, 문화활동가, 인디뮤지션, 연구자가 사용한 '위기의 순간에 축제를', '환대'의 공간과 같은 언어와 대립되는 것이다.

실정법 만능주의는 자본 권력이 고용한 사적 폭력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조선족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물리력으로 사태를 해결하라는 류의 훈수 두기와 '나 같아도 용역 사서 밀어버렸겠다', '무서워서 세 놓겠다' 류의 건물주에 감정이입하는 입장이다. 대중은 갈등을 관전하거나 훈수를 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력 관계에 참여를 선언하기도(비록 온라인상에서의 선언이지만) 한다. 응당 갑과 을의 관계여야 할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에서 세입자가 '감히' 저항하는 것을 '을질'이라 칭하는 것, 그리고 '까페라고? 손님이 왕인데 나도 갑질 해주러 가겠다'고 건물주 입장에서의 보복을 선언하는 것이다. 나아가 '당신들이(유명 연예인인 건물주처럼) 국위선양을 하기를 했나', '건물 사시든지'와 같은 반응은 비록 관전하는 싸움에서지만 상대적 강자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율법적인 논리와 신성불가침한 사유재산의 문화가치가 대중의 논리가 되고 '스스로의 감시(do-it-yourself surveillance)'가 개인에게 내면화된 것이다(Newman, 2012).

건물주가 '똥 밟았다', '악질 세입자한테 걸렸다'는 표현 또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드로잉 사태가 사적 개인 간의 계약 불발에서 비롯된, 운이 없어서 생긴 개별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드로잉 측은 이와 같은 내몰림이 도시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 사건이 아닌 '재난의 공공성을 선언'한다는 표현을 빈번히 사용했다. 2015년 12월 연구자, 문화활동가, 예술가 등이 모여 토론한 <5회 한남포럼> 등에서 드로잉 운영진은 수 년 동안 여러 차례 '비자발적으로 이주'하면서도 그 이유를 몰랐으나 반복된 경험으로부터 이것이 도시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알았으며 예술가로서 쫓겨나는 것이 부끄럽지만 이를 '도시의

유산'으로 남기려 한다고 발언했다. 사적인 개인 간의 문제이자 계약 관계로 인식되는 문제를 투기적 도시화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사건, 도시 공통의 문제로 확장하려는 시도다. 드로잉에 연대한 디자이너 그룹 <일상의 실천>은 건물주 측이 보낸 소장에 '법적 언어가 아닌 시각 언어로' 답변한 <답변서 프로젝트>에서 용역을 동원한 노골적인 폭력과 발언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자본의 폭력에 문제를 제기했다(테이크아웃드로잉, 2016: 290). 이 같은 문제 제기와 함께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가 참여한 <모두를 위한 레지던시>의 일부로 진행된 <아나키 영화제>, 이들이 사용한 '직접행동', '공유지대' 등의 언어는 사태가 단순한 임대차 갈등을 넘어서 도시공유재를 생산하는 실천 운동을 지향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대중은 사태를 '가진 자들' 간의 싸움으로 재현함으로써 이를 자신들이 겪을 수도 있는 일이나 자신들이 속해 살아가는 도시의 문제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 모습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세입자가 내는 "월세가 700만 원"이라거나 "한남동이면 금싸라기 동네", 세입자가 "시위하러 갈 때 탄 외제차 팔아서 건물 하나 사", "예술가들은 가난한 동네 가서 짠 임대료로 살며 작업"하는데(《한겨레》, 2015년 10월 2일자), 또는 "왜 대출을 받아 4억을 들여서 남의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나", "4억은 아무나한테 대출 안 해준다" 같은 반응은 문제를 특정 지역과 계급의 것으로 치부한다. '당신 같은 가진 자들이 때를 쓰면 나중에 진짜 약자 세입자가 더 고생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타난다. 반면 드로잉 측은 도시의 '난민', '망명', '유배지'와 같은 언어를 구사했는데 이는 계급의 문제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결 구도를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드로잉은 도시에서 권리를 박탈당한 모든 이를 문제의 당사자로 설정하고 현장에 소환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 현장을 '망명지'이자 공유지로 재구성했다. 공유 실천 운동으로서 드로잉이 사용한 대항 언어와 행동은 이어지는 절에서 살펴본다.

4. 반란적 공유 실천 운동과 재난이 만들어낸 공유지대

이 두 예술가가 지금 만나고 있다. …… 애초부터 문화와 사람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임대차법과 젠트리피케이션(지역의 대지주화) 광풍에 휘말려 들은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 재난 유토피아, 한남동 카페는 지금 소통과 호혜, 기억과 예술이 살아나는 창조적 공유지대가 되고 있다 (《한겨레》, 2016년 3월 15일자, 조한혜정 칼럼 중).

‘재난 유토피아’, ‘창조적 공유지대’(《한겨레》, 2016년 3월 15일자)는 물리적 폭력과 지역의 대지주화, 임대차법이 맞물려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항하는 드로잉의 방식이 공유의 실천 운동으로서 지니는 의미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2016년 2월, 한 공중과 방송에서 사태를 다룬 것을 계기로 임대차인 간 협상이 시작되고 같은 해 4월 협상이 마무리되기까지 정해진 기한이 없이 지속되었던, ‘재난’과 철거 용역이 언제라도 들이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예술가와 문화활동가를 비롯한 많은 수의 연대자를 현장에 머무르게 했다. 이들은 현장을 지키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에 집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했다. 그중에서 유사한 현장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물품을 보낼 수 있는 ‘재난쇼핑몰’이나 다수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조합 형태의 드로잉 계획은, 이들의 저항이 한남동의 카페 공간을 넘어서 공유지대를 상상하고자 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드로잉은 사건을 공론화하며 연대망을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도시의 ‘재난’과 ‘유배’, 재난을 맞은 ‘난민’, 재난을 ‘도시의 유산으로 남기기 위한’ 작업, ‘망명’, ‘위기의 순간에 벌이는 축제’를 젠트리피케이션 저항 운동의 주요 언어로 구사했다. 필자는, 특히 드로잉 측이 ‘재난’이나 ‘난민’과 같은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로잉 사태의 당사자를 높은 경제적 지위, 풍부한 문화지식 자본에 관련된 논란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한 것으로 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세입자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대중의 인식, 즉 결국 부촌으로서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서울의 한 남동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불하며, 수억 원의 대출을 받을 능력이 있는 ‘가진 자’라는 이미지는 사태에 공감하는 폭을 축소할 수 있을 법한 것이었다. 그러나 드로잉 측은 ‘재난을 맞은 난민’으로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오히려 문제를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투기적 도시화의 과정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무작위하게 닥칠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만들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난민’이란 가령, 반지하방과 옥탑방을 전전하는 예술가, 그리고 고국에서 정치적으로 망명하 한국에 오게 된 문자 그대로의 난민⁹⁾ 모두를 반란적 공유 실천 운동의 주체로 포함해 현장으로 이끌었다.

반란적 공유 실천 운동에 함께한 이들이 경제적·사회적·이데올로기적으로 특수한 이들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도 드로잉 사례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이는 도시공유재의 실험을 시도하는 독립 공간들이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이나 대항 문화적 정체성으로 특징지어지지 않으며, 이른바 ‘비주류 사회 썸’에 있는 아나키스트 뮤지션부터 지역사회 활동가, 망명자들, 때로는 유행을 이끄는 예술가를 포함한다고 본 Bresnihan and Byrne(2015)의 관찰과도 유사하다. 이것은 도시공유재의 실천 운동이 계급과 ‘적’을 상정해두고 싸우는 사회운동과 구분되는 지점이며 여기에서의 운동은 낭만적이지도 급진적이지도 않다. 이로써 드로잉의 실천은 어떤 명백한 정치적 동기(가령, ‘반-자본주의 사회를 만들 것이다’)나 윤리적 동기(가령, ‘공유는 좋은 것이다’)와 별개로 도시의 인클로저로부터 탈출구를 찾는 실험으로 자리매김한다(Bresnihan and Byrne, 2015: 48; De Angelis, 2012). 요컨대, 젠트리피케이션에 맞서는 저항 운동의 수단으로 드로잉이 택한 비법적·반란적 공유 실천 운동은 흩어져 있는 내몰림의 객체들을

9) 드로잉의 주방에서는 버마로부터 정치적 망명을 해온 난민이 한동안 요리를 담당했다(2015년 12월 운영진과의 대화 중). 드로잉 측은 ‘난센 여권’을 주제로 전시하는 등 난민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뤘으며 강제 이주 당하는 예술공간의 문제를 난민 문제에 비유했다.

저항의 주체로 불러들였다.

‘대망명’은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드로잉에서 열린 포럼과 공연, 전시 프로그램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시기에 열린 <3회 한남포럼 재난의 공공성: 위기의 순간에 축제를>, <구제파티>는 드로잉 측이 이 사태를 도시 공통의 문제로 확장하려 했으며 축제, 파티를 도구로 삼았음을 보여준다. 뮤지션들의 공연 대망명에는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공연장들이 사라지면서 흥대 인디씬이 쇠퇴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 뮤지션들이 흥대 ‘두리반’ 사태를 계기로 구성된 ‘자립음악생산조합’의 조합원이나 그 지인들, 데뷔하지 않은 뮤지션들이 이 삶의 터전으로부터의 내몰림이라는 문제에 공감하며 참여했다.

용산의 역사와 장소성을 통해 드로잉 사태를 설명한 <6회 한남포럼>에는 지역 연구자와 문화 연구자, 건축가, 마포석유기지에서 시민이 주체로 운영하지는 계획이 취소되며 퇴거 명령을 받은 ‘문화로놀이짱’ 활동가, 우사단에서 ‘계단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사단단’ 활동가, 인근 지역 카페 운영자 등이 참여했다. 이후 2016년 1월에는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녹색당, 노동당, 언론연대, 문화연대 등이 기획하는 행사가 끊임없이 열렸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재난연구소>에는 지리학자, 사회학자, 예술가, 문화활동가, 영화감독, 사진작가, 소설가, 기사가 참여했다. <재난연구소>의 참여자 일부는 이후 흥대의 ‘밀려나는 공간들’을 기록하는 작업, 한남동의 젠트리피케이션을 기록하는 작업, 국공유지가 호텔 건설업자에게 장기 임대되는 것에 반대하며 스쿼팅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 등으로 연구와 활동의 망을 넓혔다. 공연, 전시로 드로잉의 저항을 지지한 예술가들은 유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의 다른 지역 현장으로 연대의 범위를 넓혔다. 영업장이자 카페인 드로잉은 소유권 기준으로 사유 공간인 지역상점뿐 아니라 국공유지를 점거한 문화활동가들, 동네와 거리를 지역 시장으로 이용하는 활동가들을 공유재를 생산하는 주체로 연결했다.

드로잉의 ‘재난’이 담아낸 전시, 공연, 포럼을 더 열거할 수 있겠으나,

행동의 주체들이 공유했던 기반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를 요약하고자 한다. 이들이 공유한 지향은 ‘우리가 그 일부라고 느끼지 못하는’ 도시에서 소유권과 통제의 방식을 다시 고안해내는 공간을 만들어내려는 것이었으며, 공유의 실천을 통해 기존의 방식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것이다 (Bresnihan and Byrne, 2015). 이들이 주장하는 권리, 가치는 대개 기존 법제나 재산권 시스템에서는 반영되지 않거나 부정당해온 것들이다. 2016년 3월 14일 저녁에는 드로잉에서 ‘긴급 반상회’가 소집되었다. 같은 해 2월, 공중과 TV 채널에 드로잉 사태가 자세하게 방영된 이후 임대차인 간의 대화가 시작되었고, 합의문을 완성해가던 시점이었다. 합의문은 레지던시 작가¹⁰⁾에게 제기된 소송을 취하지 못한 채 마무리될 위기였는데 이는 긴급 반상회의 주요 안건이었다. 드로잉 측은 자신의 공간을 지켜내는 데 연대한 예술가를 법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라 주장한 반면, 드로잉 측 협상 주체는 몇 가지 조건으로 합의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또 다른 협상 카드를 내밀었다가는 협상 테이블 자체가 결렬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폭풍 전야’와 같다고 표현했다 (긴급 반상회 중 언급된 내용).

집합적으로 생산된 공유제, 생산 활동에 연결된 사회적 관계는 실정법과 현행 사유재산권 체계 밖에 있는 것이다. 법적 소유권이 권력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면 ‘위기의 순간에 축제를’ 벌임으로써 소음과 균열을 만들어내고자 한 드로잉의 시도는 법과 자본 논리에 편입되지 않은 존재와 권리를 장소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권력 관계를 바꾸는 것이었다(Bresnihan

10)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레지던시 작가로 참여했으며, 강제집행 현장에 있다가 임대인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소당했다. 드로잉의 사태를 소재로 약탈적 도시화, 젠트리피케이션, 폭력적 강제집행 등을 비판하는 시각예술, 행위예술, 설치예술 등을 보였다. 예를 들어 2016년 4월의 한 퍼포먼스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남근주의 도시화로 비판하며, 관객들에게 남근 모양의 아이스크림을 나누어주었고, 유사한 문제의식을 ‘땅따먹기’로 표현하는 작품을 만들기도 했다. 작가에게 소송을 걸었던 주체와 협상의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 취하 건이 문제가 되었으나 소송은 임대차인 간 협상이 타결되며 약 1년 만에 취하되었다.

<그림 1>



대망명, 위기의 순간에
축제를(2015년12월)

반상회 조찬모임
(2016년 1월)



<6회 한남포럼>(2016년 2월)



<51+ Festival>(2016년 5월)

사진 촬영: 필자

and Byrne, 2015; Jeffrey et al., 2012). 이와 같은 불복종은 ‘계속해서 쫓겨나고 권리를 부정당해도 연명하고 존재를 드러내고, 권력 앞에 나타나는 것에 의해서 권력의 불법을 폭로’하고 이로써 법과 사적 자본의 폭력에 맞서는 것이다(이계수, 2014: 143).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지난한 갈등을 문화 예술의 방식으로 이끌어간 드로잉의 저항은 현행법의 부당성에 대해 법적 논리로 대응했다면 일으키기 어려웠을 균열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반란적 커머닝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

빈 장이 생긴 거잖아요. 빈 공간. …… 공공재로 사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래서 재난을 선

언했고, 부끄럽지만 재난이 이 도시의 유산이 됐으면 좋겠다. …… 비단 테이크아웃드로잉 만의 일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어떤 것의 상징일 수도 있을 텐데 조금 더 알아봅시다, 제가 선택한 건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단편영화 <또 다른 시선: 가려짐>(감독: 백승우) 중 최소연 드로잉 대표].

드로잉은 빈 장을 공공재로 사용하기 위해 변호사들 간의 대리전에 의존하지 않고 그곳을 대안적 공간과 관계의 실험장으로 사용했다. <한남 포럼>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인류학자 김현경은 사적 소유권과 환대의 논리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에 대한 자신의 기존 논의를 드로잉 사태에 적용하며 이와 같은 저항의 방식을 비법 투쟁이라 칭했다(김현경, 2015: 289). 이에 따르면 드로잉이나 두리반, 용산참사는 ‘장소를 둘러싼 싸움’이라는 공통점을 지니는데, 소유권의 형태와 관계없이 어떤 도시 공간이 소멸되는 것은 공적으로서의 우리의 존재가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는 법적 장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은 언제나 이런 장치들을 ‘우회’한다(테이크아웃드로잉, 2016: 121).

젠트리피케이션이라지만 핵심은 돈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는 옥탑방이나 지하 셋방이나, 경기도로 밀려나서 마치 21세기 원주민처럼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폭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는가, 환대의 권리 혹은 사람의 권리라는 말로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해 보아야 하고요. 테이크아웃드로잉 사태가 그러한 싸움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준법투쟁과 법을 어기는 투쟁에 대해서…… 법이란 건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법을 고치는 것도 우리고……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소란이 벌어져서 광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의회에서도 이야기하고(김현경, 2016년 3월 5일 <강제집행 1주년 앵콜 발제> 중).

이로부터 필자는 드로잉 사태는 도심에서 임대료 상승을 감당하지 못

해 쫓겨나는 세입자의 문제나 상가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법적 공방만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드로잉이 벌이는 비법 투쟁은 물리적인 울타리 치기와 공간의 축출, 사유재산권 문제 바깥에 있는 ‘환대’, ‘사회 안에서의 자리’의 소멸까지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환대는 인정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또한 위 언급에서는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법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어떤 행위는 시민의 행위로, 어떤 행위는 반란(insurgence)의 행위로 규정하는 사회적 맥락을 짚어보는 것이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공적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다(MirafTAB and Wills, 2005; Jeffrey et al., 2012). 요컨대, 드로잉이 지속적으로 법보다 ‘권리’, 세입자보다 ‘난민’을 언급하며 벌인 투쟁은 한남동이라는 거점 공간을 통해 서울 전체에 만연해 있는 자본과 자본친화적 법의 권력에 대한 불복 중이었다.

드로잉이 사태를 가시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데는 임대인이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도 작용했고 드로잉 측이 기존에 보유한 풍부한 문화자본을 이용해 연대망을 형성했다는 점도 있었다. 무엇보다 연구에서는 이들이 사태를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언어가 도시에서 ‘재난’을 경험한 이들을 ‘난민’으로 묶어 이들을 공유지대로 이끌어냈음을 강조했다. 이 작업에서 물질적 공간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는데 드로잉은 그 거점 공간이 되었으며, 동시에 카페라는 공간의 물질성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 또한 변화시켰다. 나아가 이 변화는 한남동의 카페라는 구체적인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강제집행의 위기에 놓인 다른 현장들(‘삼통치킨’, ‘통영생선 구이’, ‘우장창창’, ‘아현포차’ 등)과 공유재 실험을 시도하는 현장들(‘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 등)로 범지역적인 연대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도시공유재의 실천 운동으로서 드로잉이 지니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5. 나오며

임대차인 간의 합의로 사태가 마무리된 지 몇 주 후인 2016년 5월 1일, 드로잉에서는 <51+ Festival>이라는 이름의 축제가 열렸다. 하루 종일 계속된 축제에서는 수 십 명의 뮤지션이 카페의 1층 마당, 1층 내부, 2층, 옥상에서 동시에 공연을 벌였다. ‘51+’는 홍대 두리반에서 있었던 저항적 축제의 이름을 차용한 것이었는데 이 날의 축제는 사태의 해결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열린 것이다. 현장에서 공연한 한 뮤지션은 보통 한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면 현장이 결합 대상으로서 생명력은 잃었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오지 않지만, 이날의 경우 ‘드로잉의 승리를 축하하러’ 왔다고 말했다(<51+ Festival> 당일 대화 중). 동네 주민이자 <재난연구소>의 연구자로 현장에 참여한 필자가 이 축하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드로잉은 사라진다. 합의 내용에 따라 드로잉이 2016년 8월 31을 기점으로 운영을 마치고 ‘나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힘겨웠던 1여 년의 투쟁이 극적인 합의로 마무리되었다는 결론과는 별개로 이 승리는 결국 기존의 임대차인 간 관계와 법적 틀 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합의였다는 점에서 공허함이 없지 않다.

이 지점에서 역사적으로 자본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공유재는 머지않아 시장의 형태를 한 것으로 취해졌다는 점과 함께, 그럼에도 끊임없이 경계를 협상하는 과정으로서 도시공유재와 공유의 실천이 지니는 의미를 상기하고자 한다(Eizenberg, 2012). 아직 시장의 것으로 취해지지 않은 ‘신자유주의의 플랜 B’들은 종종 임대료 상승과 철거의 문제를 맞아 ‘지하로 내려가는(go underground)’ 또는 ‘레이더를 피해 나는(fly below the radar)’ 전략을 택한다(Caffentzis, 2010). 그러나 도시에서의 가시성의 정도를 줄이는 것은 대안적 실험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어려워지는 것이고 따라서 공간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도시를 변화시킬 능력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가시적 존재감은 권력 관계를 전환시

키기 위한 기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Bresnihan and Byrne, 2015). 남아 있을 수도, 조용히 사라질 수도 없는 상황에 대해 김남균 그문화갤러리 디렉터는 ‘예술가여, 멋있게 쫓겨나시라’고 주문한다(2015년 12월 <5회 한남포럼> 중).

멋있게 쫓겨나는 혹은 쫓겨날 일이 없는 대안적 도시가 어떤 모습일지 자세히 그려내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려내는 작업은 수많은 실천적 공유로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드로잉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연구와 정책과의 교점도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다. 다만 도시공유재는 본질적으로 그 경계를 끊임없이 경합하며 만들어지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명쾌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공유재는 본질적으로 차이와 모순들로 가득 찬 공간이며, 또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공간이기 때문이다(Noterman, 2016). 또 도시공유재의 조직은 깔끔하거나 명확하지 않으며, ‘실재하는 공유재’는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고 이상적인 형태에 모순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Bresnihan and Byrne, 2015; Eizenberg, 2012). 심지어 인클로저에 의한 도시공유재의 침식에 저항하는 움직임들은 종종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현실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드로잉과 반란적 공유 실천 운동의 과정에서 꾸러진 <재난연구소>는 공간적 거점을 잃어버리고 또 다시 도시의 ‘난민’이 된다. 당사자를 포함해서 사태를 지켜봐온 이들은 이를 지속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은 어떤 형태일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질문받는다. 그러나 국가와 자본에 의해 공간과 사회적 관계가 영토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틈’을 찾는 소란스러운 과정 중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 연구는 공유재의 침식이 가속화되는 도시 현실에서 물리적 축출, 규범적 정당화와 저항의 지점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맞물려 일어나는지 설명하는 개념 틀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지니며, 분쟁 현장에서 지식 생산의 실천으로서 의의 또한 지닌다. 특히 본 논문의 사례 연구는 상업 부동산에 대한 투기의 심화와 그 과정에서 투기 자본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여전히 동원되고 있는 철거 용역, ‘뜨는 동네’에서

급속도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가게들로 대표되는 서울의 도시화 경험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저항과 연대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발전주의 도시화에서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저항을 포착하는 렌즈로서 도시공유재 논의를 더 세밀한 것으로 다듬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작업은 지식 생산과 토론의 장, 실천 현장 사이의 접합점을 만들어내는 시도가 될 것이다.

원고접수일: 2016년 8월 16일

심사완료일: 2016년 9월 6일

게재확정일: 2016년 9월 17일

최종원고접수일: 2016년 9월 20일

❖ Abstract

Enclosure of Urban Commons and Takeout Drawing's
Insurgent Commoning

Han, Yoon-Ae

Recent activism and studies are seeing an increased use of the terms, enclosure and commoning, in entangling the relationship of physical displacement and normative control of urban spaces and galvanizing practices. Taking the conceptual lens of enclosure and commoning, this study looks at a case of Takeout Drawing, an independent artspace/café in Seoul. Diverse artists, cultural activists, and researchers gathered to combat forced eviction attempts by the landlord in 2015, labeling it as gentrification. This study is based on a 9-month long militant research in the field and on media representations of the unfolding events. Findings suggest that the public perception embodies more than a mere spectator' position, leading to authoritarian legalism to judge and justify violence. Takeout Drawing attempted to broaden their struggle to include shared concerns of those deprived of their rights in current urban crisis. 'Disaster', 'refugee', and 'great asylum' are symbolic languages Takeout Drawing used to create ruptures in the current power relations. In conclusion I argue that the uneven boundaries of 'actually existing urban commons' are negotiated by ceaseless insurgencies, allowing re-imagination on cities as collectively produced commons.

Keywords: gentrification, enclosure, commons, commoning, Takeout Drawing

참고문헌

- 곽노완. 2012. 「공통도시에서 글로컬아고라로」. 《마르크스주의 연구》, 9(1), 144~171쪽.
- _____. 2013. 「‘공유도시 서울’과 글로컬아고라의 공유도시」. 《마르크스주의 연구》, 10(3), 146~171쪽.
- 김용창. 2015. 「신자유주의 도시화와 도시 인클로저(1)」. 《대한지리학회지》, 50(4), 431~449쪽.
- 김현경. 2015.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 지성사.
- 배수현 역. 2015.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갈무리(Bollier, D. 2014. *Think like a commomer: A short introduction to the life of the commons*. New Society Publishers).
- 송병건. 2010. 「연구 논문: 농업혁명, 의회 인클로저와 농촌사회의 변화, 1750~1850」. 《영국 연구》, 23(단일호), 91~124쪽.
- 윤순진·차준희. 2009. 「일반논문: 공유지 비극론의 재이해를 토대로 한 마을숲의 지속가능한 관리-강릉 송림리 마을숲 사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19(2), 125~166쪽.
- 이계수. 2014. 「도시민의 불복종과 도시법의 도전」. 《민주법학》, 56(단일호), 137~178쪽.
- 이임수. 2014. 「아나키텍처(Anarchitecture)·안티젠트리피케이션(Anti-gentrification)」.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40, 243~274쪽.
- 정영신. 2014. 「공유의 이론과 현실, 그리고 가능성」. 《환경사회학연구 ECO》, 18(2), 205~214쪽.
- 최은창 역. 2015. 『네트워크의 부』. 커뮤니케이션북스(Benkler, Y. 2006. *The wealth of networks: How social production transforms markets and freedom*. Yale University Press).
- 테이크아웃드로잉. 2016. 『한남포럼』. 테이크아웃드로잉.
- 황진태. 2016. 「발전주의 도시에서 도시 공유제 개념의 이론적·실천적 전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2), 1~16쪽.
- 강재훈. “동네미술관, 사이의 아량에 저장잡히다.” 《한겨레》, 2015.10.02(보도자료).
- 백승우. 2016. <또 다른 시선: 가려짐>(단편영화).
 “사이는 악성세입자에게 걸린거 같네요”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2016. 02.04.
- 이재훈. “국립국어원, ‘젠트리피케이션’ → ‘등지 내몰림’ 어때요?.” 《중앙일보》, 2016.05.10.
- 조한혜정. “사이와 테이크아웃드로잉의 수난.” 《한겨레》, 2016.03.15(보도자료).

- Blomley, N. 2007. "Making private property: enclosure, common right and the work of hedges." *Rural History*, 18(01), pp. 1~21.
- _____. 2008. "Making space for law" in Cox, K. R., Low, M. & Robinson, J.(Eds.). *The SAGE handbook of political geography*. London: Sage.
- Bollier, D. 2013. *Silent theft: The private plunder of our common wealth*. New York: Routledge.
- Bresnihan, P. & Byrne, M. 2015. "Escape into the city: Everyday practices of commoning and the production of urban space in Dublin." *Antipode*, 47(1), pp. 36~54.
- Caffentzis, G. 2010. "The future of 'The Commons': neoliberalism's' Plan B' or the original disaccumulation of capital?." *New Formations*, 69(1), pp. 23~41.
- Caffentzis, G. & Federici, S. 2014. "Commons against and beyond capitalism."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9(suppl 1), pp. i92~i105.
- De Angelis, M. 2012. "Crises, movements and commons." *Borderlands E-Journal: New Spaces In The Humanities*, 11(2), p. 4.
- Kip, M., Bieniok, M., Dellenbaugh, M., Müller, A. K., & Schwegmann, M. 2015. "Seizing the(Every)Day: Welcome to the Urban Commons!" in Dellenbaugh, M., Kip, M., Bieniok, M., Müller, A. K. & Schwegmann, M.(Eds.). *Urban Commons: Moving Beyond State and Market*(Vol. 154). Basel: Birkhäuser.
- Eizenberg, E. 2012. "Actually existing commons: three moments of space of community gardens in New York City." *Antipode*, 44(3), pp. 764~782.
- Foster, S. 2011. "Collective action and the urban commons." *Notre Dame Law Review*, 87, p. 57.
- Ghertner, D. A. 2014. "India's urban revolution: geographies of displacement beyond gentrific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46(7), pp. 1554~1571.
- Gidwani, V. & Baviskar, A. 2011. "Urban common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46(50), pp. 42~43.
- Gillespie, T. 2016. "Accumulation by urban dispossession: struggles over urban space in Accra, Ghana."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41(1), pp. 66~77.
- Harvey, D. 2012. *Rebel cities: from the right to the city to the urban revolution*. New York: Verso Books.
- Hodkinson, S. 2012. "The new urban enclosures." *City*, 16(5), pp. 500~518.
- Hou, J.(Ed.). 2010. *Insurgent public space: guerrilla urbanism and the remaking of contemporary cities*. Routledge.
- Jeffrey, A., McFarlane, C., & Vasudevan, A. 2012. "Rethinking enclosure: Space, subjectivity and the commons." *Antipode*, 44(4), pp. 1247~1267.
- Lee, S. & Webster, C. 2006. "Enclosure of the urban commons." *GeoJournal*, 66(1-2), pp. 27~42.

- Leitner, H., Sheppard, E., & Sziarto, K. M. 2008. "The spatialities of contentious politic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3(2), pp. 157~172.
- Lees, L., Shin, H. B. & López-Morales, E. 2016. *Planetary Gentrification*. Cambridge: Polity Press.
- Linebaugh, P. 2008. *The Magna Carta manifesto: Liberties and commons for all*. Berkely and Los Angeles,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irafab, F., & Wills, S. 2005. "Insurgency and spaces of active citizenship the Story of western cape anti-eviction campaign in South Africa."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25(2), pp. 200~217.
- Newman, A. 2013. "Gatekeepers of the urban commons? Vigilant citizenship and neo-liberal space in multiethnic Paris." *Antipode*, 45(4), pp. 947~964.
- Noterman, E. 2016. "Beyond Tragedy: Differential Commoning in a Manufactured Housing Cooperative." *Antipode*, 48(2), pp. 433~452.
- O'Brien, D. T. 2012. "Managing the Urban Commons." *Human Nature*, 23(4), pp. 467~489.
- Russell, B. 2015. "Beyond activism/academia: militant research and the radical climate and climate justice movement(s)." *Area*, 47(3), pp. 222~229.
- Sevilla-Buitrago, A. 2012. "Territory and the governmentalisation of social reproduction: parliamentary enclosure and spatial rationalities in the transition from feudalism to capitalism."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38(3), pp. 209~219.
- _____. 2014. "Central Park against the streets: the enclosure of public space cultures in mid-nineteenth century New York." *Social & Cultural Geography*, 15(2), pp. 151~171.
- _____. 2015. "Capitalist formations of enclosure: Space and the extinction of the commons." *Antipode*, 47(4), pp. 999~1020.
- Shin, H. B. 2016. "Economic transition and speculative urbanisation in China: Gentrification versus dispossession." *Urban Studies*, 53(3), pp. 471~489.
- Shin, H. B. & Kim, S. H. 2016. "The developmental state, speculative urbanisation and the politics of displacement in gentrifying Seoul." *Urban Studies*, 53(3), pp. 540~559.
- Shin, H. B. Lees, L. & López-Morales, E. 2016. "Introduction: Locating gentrification in the Global East." *Urban Studies*, 53(3), pp. 455~470.
- Springer, S. 2014. "Why a radical geography must be anarchist." *Dialogues in Human Geography*, 4(3), pp. 249~270.
- _____. 2015. "Postneoliberalism?."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47(1), pp. 5~17.
- Vasudevan, A., McFarlane, C. & Jeffrey, A. 2008. "Spaces of enclosure." *Geoforum*, 39(5), pp. 1641~1646.